

순창 장난감 도서관 '인기'

개관 4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7천여명 넘어... 부모·아동 만족도 높아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 4개월만에 방문객 7천여명을 넘어 서면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2일 정식 개관 했으니 월 평균 180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셈이다. 주말에는 70~100명 정도가 꾸준히 방문하면서 영유아를 둔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장난감 대여실과 액션볼 놀이실, 역할 놀이실, 장난감 속독실 등을 갖추고 335종 988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해 놓았다. 보통 집에서 서너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던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장난감으로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한가지 인기의 주요한 요인은 수요자에 맞춘 운영방식이다. 군은 개관 후 2월초부터 기존 일요일과 월요일 주 이틀 휴일제에서 일요일 주 하루 휴일제로 변경해 군민들의 이용 편의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 4개월만에 방문객 7천여명을 넘어서면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를 넓혔다. 읍면 주민들이 거리상 방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읍면사무소로 요일마다 배달할 수 있는 배달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군 관계자는 "순창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처럼 부모와 아이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및 안전공제회비 지원, 신체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다양한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다

도시문화 아카데미 '남원 팟캐스트' 첫 강좌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인 '도시문화 아카데미'의 신규 프로그램 '남원 팟캐스트'의 첫 강좌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아트센터(구KBS방송국)에서 열렸다.

'남원 팟캐스트'는 1인 미디어 방송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보며 지역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콘텐츠개발교육 프로그램이다.

성인반과 청소년 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지역에서 라디오 소재 찾아보기, 방송기획, 라디오 장비 다루기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남원 팟 캐스트 성인반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청소년반은 5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각각 2시간씩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남원시는 "문화도시의 언제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팟 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시민이 문화도시사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도시사업을 인터뷰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로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남원문화도시 사무국(063-635-0014,0016)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순창군이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하절기 방역소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방역소독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안전한 방역소독을 위해 지난 11일 읍·면 방역 담당자 및 방역 소독원 24여명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약품 사용법과 방역 장비 사용요령 등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했으며 방역소독 장비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교체 등 최상의 장비 여건을 만들었다.

이번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은 인구 밀집지역, 관광지, 쓰레기 매립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살충제에 물을 희석하여 살포하는 친환경 연구소독을 실시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 하고 대기오염 발생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영곤 보건지원장은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일자리 창출 시책 '우수'

우수사례 시군에 공유... 인센티브 5천만원 지원 받아

순창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일자리 창출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가 각 시군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순창군은 인센티브로 일자리 사업비 5천만원도 지원 받는다.

관련해서 15일 전북도청에서는 4개 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도 진행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순창군은 지난해 2017년 일자리창출 종합발전 계획 수립,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전수조사, 청년 맞춤형 일

자리정책 간담회 개최, 일자리지원센터 개설 및 홈페이지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우수시책으로 발표했다.

또 올해는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사업과 자금 지원 정책과 농촌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벤치마킹, 체계적인 창업보육시스템 운영, 4차산업 멘토링 교육 등 특색있는 정책을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기업 인프라가 크지 않은 농촌 환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부동산 공시지가 주거중심 큰 상승세

개별공시지가 전년비 6.42% 상승, 주거지역은 9.33%

임실군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실지역 내 아파트 건립과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변화했다.

15일 임실군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고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및 검증지를 심의·의결했다.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와 토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

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 사용료 산출대상 토지 등 151,340필지로 전체필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임실군의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42% 상승했다. 이는 지난 해 전년대비(2016년) 상승한 6.3%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세는 주거지역 가격이 높아진 데서 기인했다. 주거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9.33%으로, 작년(7%)보다 높아졌다. 이외에 농림지역도 6.6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지역은 지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강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결정하고 공부정리 및 세무부서 등 통지하여 각종 세금관련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임실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군,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교량관리 안전사고 예방 주력

임실군이 교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과 보수 및 정밀점검영역을 실시하는 등 교량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군은 정밀점검영역을 통해 노후위험교량인 부동교를 재 가설하기 위하여 도비 7억원 포함 20억원을 확보,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운안교과 필봉교의 보수를 위해 군비 2억원을 확보, 올해 5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대상 11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 영역을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전 예비후보는 "모두가 잘살고 행복하길 원하는 임실 군민들의 열원에 완벽하게 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6.13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상두 임실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상두 임실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6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전상두 후보는 개소식을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오는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는 임실축협 앞에 위치해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 임실군을 되살리고 임실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전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임실 뭇 찾기와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